

손학규 분당을 출마 '결단 임박'

본인 밝힌 시한 앞두고 '히든 카드' 확보 못해 막판 고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9일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막판 고민에 들어갔다. 손 대표는 강원과 김해를 떠나들던 재보선 지원운동에서 벗어나 이날 하루 종일 서울에 머물렀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 이용득 위원장 등 지도부와 만나 노동계 계간기를 시도했으며 오후 시민정치행동의 '내가 꿈꾸는 나라' 창립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당이 재보선 체제로 개편된 이후 강원과 김해를 오가며 30분 단위의 촉박한 일정을 소화한 것을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손 대표가 스스로 밝힌 '결단 시한'인 4월 1일이 이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날 성남 분당을 출마해 놓고 막판 고민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손 대표가 성남 분당을 출마할 경우 후보 영입을 위해 그동안 백방으로 뛰었지만 결국 한나라당에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는 '히든 카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직접 출마' 여부를 놓고 막판 결단의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엔 민주당 사무총장은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외부 인사 영입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을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가지기 위해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회의실로 나란히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현재 상황에서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승리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손 대표가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통해 분당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치적 결단을 통해 과감하게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 승리한다면 지지를 상승은 물론 차기 야권을 대표하는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분당 음이 여러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한나라당 예비 후보들의 내전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바다 민심도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야권의 상징적인 인물인 손 대표가 나선다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분당 음에 출마해서 패배하더라도 누구도 나서지 않는 지역에 출마, 자신을 희생했다는 점에서 당 내에서 손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손 대표가 재보궐 선거 진두지휘 등을 명분으로 성남 분당 음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리한 지역을 회피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리더십에 상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손 대표가 2~3일 내에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선거 출마 위해 사표 냈다가 하룻만에 번복

화순부군수 직위 유지 부적절 논란

전남도, 대기발령 조치

화순군수 재선거를 위한 정당 후보경선에 나서기 위해 사직원을 낸 뒤 이를 번복한 부군수가 선거 기간 해당 지역 부단체장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는 해당 부단체장이 직위를 유지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후보자까지 내정했지만, 정작 해당 부단체장이 현재 직위를 원하고 있어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29일 전남도와 화순군 등에 따르면 임근기 화순부군수가 군수 재선거에 나서기 위해 지난 27일 제출했던 사직원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임 부군수는 지난 24일 화순군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지난 27일 사직원을 화순군에 냈으나 28일 오전 이를 번복했다.

그는 민주당이 전화여론조사를 통해 경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하자 이 같은 방식에 반발해 경선불참 선언과 함께 제출했던 사직원도 철회했다.

하지만, 논란은 임 부군수가 사직원을 철회했지만, 부군수직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후임자를 내정하고 임 부군수를 대기발령하는 등의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지만, 임 부군수가 현재 직위를 강력히 원하자 난감해 하고 있다.

임 부군수는 "부군수로 재직하는 것과 선거 관리는 별개"라며 "지역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새로 오는 것보다는 실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부단체장을 맡는 것이 낫다는 여론도 있어 현직에 있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장별수기자 bungy@kwangju.co.kr

"무공천 방침 철회를"

민주 순천지역위원회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은 29일 성명을 통해 "중앙당은 오는 4·27 순천 보선에서 민주당 후보 무공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순천시의회 정병휘 의장, 임종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일반 시민 등 10여명의 당원들은 이날 순천시내 순천지역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2 대선에서 정권탈환을 위해 민주당이 추진한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순천시민과 순천지역위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무공천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고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라"고 주장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석패율제 도입하려면 비례대표 늘려야"

정개특위 공청회... 재외국민 선거도 논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 공청회를 열어 석패율 제도와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추경관 선관위 부제기획관은 발제문을 통해 "현행법상 국외선거법외 대처에 어려움이 많다"며 ▲영사조사제도 도입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형의 시효연장 ▲국외선거법외자의 여권발급 제한 ▲재외선거법외 혐의자 입국통보 및 출국제한 ▲외국인 재외선거법외 혐의자 입국제한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재외선거인을 상대로 등록신청 순회집중수제를 도입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 부재자 신고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는 "재외국민 선거 도입은 한국 민주

주의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라며 "해외 여러 곳에서 선거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선거 진행 여부를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패율 제도와 같은 지역주의 완화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취지는 이해하나 더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개특위 소속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지역주의를 극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며 "전문가들을 뽑는다는 현행 비례대표 취지가 손상이 될 수 있고, 또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훈 중앙대 정치학 교수는 "지역대립의 완화가 지역별 의석 독과점 해소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지 따

져야 하고, 신인이 아니라 중진들에게 이득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재 풀뿌리지역연구소장은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 실득과정에서 국회도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은 독일이 5대5, 일본이 6대4인데 우리가 늘린다면 6대4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소장은 또 부산 남구와 여수를 통합 대상으로, 경기 수원 권선구와 경기 파주 등을 분구 대상으로 제시하며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해 소위를 구성하고,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정치개혁법 개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재오 "신정보보다 정운찬 말 믿는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한나라당의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 논란과 관련, "분당이 아무리 한나라당 우세지역이라도 경기 도적 정서도 있다"면서 "공천만 하면 한나라당이 이긴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 장관은 이날 저녁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손학규 대표 외에 후보가 아예 거론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아무리 우세지역이라도 신경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손 대표가 출마할 경우 한나라당의 대항마가 누구여야 하는냐는 질문에 "내가 관계할 일이 아니다"면서도 "분당 사람들의 자존심이 좀 답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운찬 위원장의 최근 소위 '신정보 파문'과 관련된 질문에 "신정보 씨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셨을 쓰고 정 전 총장만 실명을 썼다"면서 "본인(정 위원장)이 '교수나 대학의 명예를 손상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했으니, 그대도 대학 총장의 말을 믿어야죠"라고 정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日 방사성 물질 한국 유입 가능"

이미경 의원 주장

한국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편동풍을 타고 직접 한국에 유입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한반도에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의 직접적인 유입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간헐적으로 편서풍이 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본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편동풍을 타고 국내에 직접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9월까지 통합 진보정당 건설"

진보진영 합의

진보진영은 29일 회동을 갖고 오는 9월까지 통합 진보정당을 건설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진

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2차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어 9월까지 통합 진보정당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또 4월말, 5월말까지 각각 1, 2차 통합안을 마련하고 6월말 전후로 각당의 통합안 의결을 마무리 짓는 일정도 합의문에 담았다.

이와 함께 이들은 "우리는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생태, 인권, 소수자 권리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진보세력들을 '연석회의'에 폭넓게 참여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연내에 진보정당을 창당한다"고 합의하고 6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해 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 꿈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할 짓!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록우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천과 관심만이 소중한 아이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10여년 동안 학대피해 아동을 돌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꿈
초록우산

아동학대 신고전화
후원문의
1577-1391
(062)351-3513